

시집

말

이 시집 이름은 『잉어 이영』입니다. 잉어는 전래 동화로서 혹은 전설로서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기를 못 낳자 젊은 새댁은 열심히 조상에게 간절히 빌었더니 꿈에 잉어를 먹을 것을 알려 주어 이 잉어를 먹고 예쁜 아기를 얻는다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또 살려준 은혜로 예쁜 아내를 얻는 총각이야기도 전해옵니다. 또 있습니다. 과평윤씨와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과평윤씨가문은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잉어가 고기임에 비추어 신앙측면에서 바라보는바 상징성이 있습니다. 다른 아닌 고기가 신앙인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더 큰 의미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의 의미까지 확대됩니다.

시인인 저로서는 이 책 이름을 정하는 결정적인 동기는 저의 입안에 감도는 달콤함 그 ‘잉어’로서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잉어’ 글자나 ‘이영’ 글자가 다른 글자 앞에 붙거나 뒤에 붙어도 글자문법상 빨간 줄이 쳐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시인인 저의 마음에 아름다운 잉어와 이영의 이어짐 마음씨가 붙습니다. 홍문표 박사는 최근 은유시학- 몸 은유 몸 언어 몸시를 발표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각기 몸 언어를 가졌다는 시철학을 펴냅니다. 시에서 움직이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느낌을 가진다는 진리는 이 세상 만물 진리는 온 우주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철학시학을 펼칩니다. 이 ‘이영 이어’라는 말이 놀랍게도 어디에든 잘 붙어 은혜를 갚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말들이 놓이게 해 줍니다.

또한 잉어는 고기임에도 일반 언어로서의 이미지를 유감없이 발휘하는데 잉어의 처음 글자 ‘잉’이 바로 앞의 말을 극도로 그렇다고 해 주는 강조로서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사랑스러운 잉어의 ‘...잉어’에 놀라움이 이 시집들에 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더불어 같이 사용된 이 책 제목의 ‘이영’은 흔히 이영을 엮는다라는 이어지는 이미지입니다. 은혜를 갚고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감사로서의 이어짐을 소망하는 시집 이름입니다. 어릴 때의 그 아련한 추억, 일년에 한번 씩 올리는 초가지붕을 떠 올립니다. 짙 이영을 잘 엮어 초가지붕의 그 노르스름한 이영덧개에 정오의 햇빛이 올라왔을 때면 따스한 가을햇살이 한창 집 마당에 내려앉습니다. 오순도순 맛있는 초겨울 가을무우국을 곱들인 점심을 먹을 때입니다.

이처럼 먹이와 관련되고 또 은혜를 소제로 하는 이번시집은 초가지집에 지붕을 짙으로 다 덮은 다음 가운뎃 부분을 한 줄로 마무리 하는 용마루를 엮는 작업까지 모두 이영작업입니다. 따라서 이 시집이 주는 이미지는 신앙생활을 잘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시집의 특징은 저의 책 『우리 시조문학의 마방진 미학』에서 제기한 시조운율에 맞춘 이론을 실행하는 시집으로서입니다. 한국의 보물 중 하나 대한민국에만 있는 한국문학 시조작품의 운율, 음수율의 정형 율 초장 3·4·3·4의 14자와 중장 3·4·3·4의 14자와 종장 장 3·5·4·3의 15자를 합한 43자 이론에 따른 실천성격을 펴냅니다.

지난번 이론서한국문학발간에서 밝힌 대로 시조 한편 43자가 만드는 전통율은 사람의 오묘한 숨쉬기 일평생 리듬 3·4

로 시작하여 4·3으로 끝나는 이론에서 처음 초장의 3자와 끝 자 3자를 똑같은 음수율 리듬으로 하면서 시조작품이 이루어지는 이번 시조작품 리듬입니다. 시조작품이 가지는 한편의 43마방진은 시조 한 편이 45자 내외라는 학설과는 다르다는 논리를 실행으로 편 리듬입니다. 시조문학 리듬은 3으로 시작 3·4·3·4·3·4·3·4·3·5·4·3의 끝 3 숫자로 끝나는 법칙입니다. 다시 더 정의하면 시작 3·4로 시작 그 끝이 4·3으로 끝납니다. 이 이어짐 리듬 4·3 리듬은 이 리듬이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 예약된 리듬입니다. 줄 친 부분 3 4→3→4→3→4→3→4→3→5→4→3입니다. 이음 조건입니다. 이에 이 시집에서 이영이라는 말의 그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삶이 다양함 곧 4의 리듬이지만 아름다운 인생 살기의 3의 리듬으로 끝나는 리듬의 의미는 동시에 시조한편은 총 43자입니다.

시조작품 진가는 한 작품 안에 한 사람의 생애 리듬 43자로 한다는 아름다운 의미유추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마방진 리듬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아름답게 끝나는 의미리듬입니다.

『잉어이영』 시집은 ‘1부 잉어이영’ ‘2부 라합 잉어이영’ ‘3부 잉어이영처음잉어이영’ ‘4부 더듬이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 이미지는 잉어이영 그대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어져 오는 전설과 동화의 잉어 발굴로 아름다움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2부는 히브리어에 있는 라합 이름이 우리말 그대로 ‘넓다’에서 붙여진 이미지입니다. 3부는 희한하게도 우리말의 뽕 문법 법칙이 잘 적용되는 신기함을 발견한 3부입니다. 4부는 아무리 날고 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더듬이 인생이기에 신앙을 갖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의 사역을 잘 한 사람은 글자 그대로 사역자 있기 이미지입니다. 이에 시적으로 탈바꿈하면서 잉어라는 은혜갠기와 출산이미지와 아름다운 입속에 맴도는 달콤함이며 뒤에 붙이거나 앞에 이 잉어이영을 달아 따라 붙여도 무리가 없어서 그 달콤함 이미지가 그대로 전해지는 은유시학입니다.

제 몸은 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몸입니다

마음에 늘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시를 쓰면서 제 가슴이 쿵쿵뛰었습니다. 가슴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기쁨이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제 모습이 이렇게 오묘할 수 있나 하는 감사로 하여 행복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상범 시조시인이 그려준 제 모양입니다. 너무 오래 되어 얼굴 턱 부분에 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복 점이 붙었네요



잉어이영 이영지 2022.8.15

말

1부 잉어 이영

잉어이영	12
분홍이영	13
앵두이영	14
숨구멍이영	15
잉어꼬리	16
아내이영	17
은방울 잉어	18
장미 비 이영	19
이영이끼	20
이영 새	21
이영 벼들	22
불꽃이영	23
살빛아가이영	24
밥 풀 데기 잉	25
길 딱따 잉	26
소곤소곤 잉어이영	27
초록 딱 이영	28
씨방잉어	29
내꺼 잉	30

2부 라합 잉어이영

넓히기 이영	32
이영 방경식	33
이영 보실레	34
꽃 사람잉어	35
등우리잉어	36
90°이영	37
하늘삼아잉어이영	38
잉어입술이영	39
가족잉어이영	40
어머니잉어이영	41
빈손잉어이영	42
아가잉어이영	43
솔로몬잉어이영	44
아리랑잉어이영꽃신	45
아리랑잉어이영사내	46
식구잉어이영	47
잉어이영고향	48
여인잉어이영	49
77에덴잉어이영	50
잉어이영나방	51
잉어이영날개	52
산골잉어이영산골	53
그리움잉어이영그리움	54
당신잉어이영당신	55
단비잉어이영단비	56
락일락잉어이영락일락	57
달님잉어이영달님	58
잉어이영가슴잉어이영	59
바다잉어이영바다	60

3부 잉어이영처음잉어이영

잉어이영처음잉어이영	62
사과잉어이영사과	63
잉어이영벼들잉어이영	64
잉어이영곶손잉어이영	65
잉어이영살결잉어이영	66
잉어이영나그네잉어이영	67
잉어이영바람잉어이영	68
잉어이영첫사랑잉어이영	69
잉어이영기차잉어이영	70
잉어이영향이잉어이영	71
잉어이영잡고잉어이영	72
잉어이영메밀잉어이영	73
잉어이영시인잉어이영	74
잉어이영서리잉어이영	75
잉어이영질뜰밭잉어이영	76
잉어이영그대잉어이영	77
잉어이영여름잉어이영	78
잉어이영이따잉어이영	79
잉어이영둘레잉어이영	80

4부 더듬이이영

노을 눈썹이영	82
오징어이영	83
더듬이이영	84
너머이영	85
나락이영	86
사랑이영	87
생명이영	89
꽃사슴이영	91
시조이영	92
두 물머리이영	93
입술이영	95
가을이영	96
얼굴이영	97
나날이영	98
요사이이영	99
햇살이영	100
솜방망이이영	101
꽃망울이영	102
일기이영	103
요기이영	104
야곱이영	105

1
잉어 이영

잉어이영 새벽기도·1055

잉어는 여울목을

나
만을 두르고도
꽃바람 휘파람에
입술로 뽕긋뽕긋
동굴게 사랑하라며
잉어이영
잉어
잉

등위에 물방울을

해
빛에 받아들며
사랑이 빛나도록
보듬고 제잘제잘
봄보다 더 봄봄으로
잉어이영
잉어
잉

분홍이엉 새벽기도·1056

벗
이요
그대는요
비 오는 날에만은
분홍 옷 분홍우산 분홍 옷 분홍구두
분홍 옷 분홍치마를 두르는가
분홍
비

정말로 사랑하면이엉 새벽기도·1057

정말로 사랑하면
당신의 눈동자에
내 먼저
오른다기
오늘도
당신만을 개가 비치나 바라보고 바라봐

앵두이영 새벽기도·3501

수줍음 꽃이에요 다섯의 꽃잎날개
하얗게 이영이어 이영의 가지마다
사랑을 이영이어서 푸른 잎을 이어서

푸른 잎 사이에요 빠알간 종을 달고
단 하나 사랑에요 앵두의 이영위로
연분홍 사랑을 심을 마음 길을 이어서

가슴과 배꼽사이 가슴 폐 이영으로
연분홍 수줍음이 이영의 날이에요
화알짝 빠알강게 만 울릴 게요 땡 때영

앵두의 태양에요 입으로 한 웅 큼씩
먹느라 오물오물 앵두가 새콤달콤
콤 새콤 새콤 달콤콤 울릴 게요 앵두의

따 들어 먹을 때는 사르르 녹아들어
온몸이 풀리다뇨 사랑을 따느라고
그 무렵 오월단오에 울릴게요 따 들어

숨구멍이영 새벽기도·3502

헤에다
물을 섞어 이영 띠
아침이라

햇살이 살집 안에 햇별을 이어놓아
숨구멍 하나하나에 별이 송송
이영 띠

웃음에 별이 뜨고 울음이 사라지며
예쁘게 쿵쿵거릴
바람의
물방울이 숨구멍 햇살이 열려 포롱포롱
이영 띠

바라라 물 꼬리에
붙느라 사랑 사랑
물 꼬리 은빛 사랑
유난히 햇빛이랑
바라라
쳐다볼수록 잉어이영 바라라

바라라
물의꼬리 나르는 잉어꼬리
서로들 꼬리 따라 그 끝의 하얀 물새
나라라 서로들 잉어 잉어이영 바라라

안 해는
그 잉어의 해안을 이영으로
몸 안을 구부리고
물을 들어
나무들 햇빛 먹어라 담뱃담뱃 주느라

은방울 떨어르르
 행복 비
 좇느라오
 한낮은
 여름바람
 바람비
 달리라오
 은방울
 연못위로
 은방울 비
 또도르

장미비 밤을 샌다
 장미비
 꽃잎바다
 아 예 예 그 리 움 을 눈물로 달아버린

입술의 꽃물로
 서서
 베실베실 웃는다

웃음의
 소리
 장미
 두 손을
 모아들여그리움뜨는법을
 풀어서늘여놓고
 거기서 여기까지가
 예쁘게도 웃는다

폭포수 아래에 서
아뢰울 말씀에는
풀피리 하나 두울 달리는 낭떠러지
파랗게 이엉으로 엮는 강원 삼척 육백산(1244).

아래에
고이고이 열리는
연못깊이 3~4m 하늘 새가 포르날아
줄줄이

이끼의 절벽 떠들어도
받아줄

산비탈 타고 도는 육백산 연못에는
마음의
마을 지나 흐름을 따라가며
걸어서 닦아 갈수록 내 물소리
이엉소

불 속에 들어서도 살아나 휘얼휘얼
불바다 그 늪에서 온몸이 살아있어
물불을 켜 드는 힘이 어디에서 오니까

*물불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입니다

이영 벼들 - · 3508

줄줄이 능수벼들 잉어의 이영인가
물속을 땅 위에도 물길이 늘어놓고
속삭임 휘날어지는 능수벼들 만찬회

불꽃이영 - 새벽기도 · 3509

비늘을
겹겹이 단
불빛이
숨 쉬어요

물속의
날마다를
모아서
주황불꽃
화안한
불 모으기로
희망 빛을
달아요

부풀은 가슴 안이 나올 길 열리는 날
보여준 깊이에는 잉어의 사랑한 몸
쏟아내 살빛을 보여 드리는 일 뽀오웅

바람이 부는 날도 둥글게 꼬리 잡고
서로들 뽕긋뽕긋 만나는 웃음 따라
잉어의 예쁜 꿈들이 아기 낳아 뽀오웅

새새택 소원이라 살수가 있는 것은
물 위에 뜨는 가슴 그래서 녹아나는
아가의 울음소리가 잉어이영 뽀오웅

연못가 능수버들 꿈속을 알리면서
늘이기 좋아하여 물 비단 깔아주고
새 새택 웃음 깃발을 보여주며 뽀오웅

날개를 겹겹이 켜 불빛이 들리느라
아가의 웃음소리 문창을 밝히느라
화안한 사랑 모으기 잉어이영 뽀오웅

겨울에 잎이 지는 콩과의 떨기나무
3~5m 키로 크며 밑 부분 여러 이영
이름이 밥 풀 데기야 밥 먹이는 이어영

잎보다 꽃 먼저로 마음을 펴 보이는
하나의 꽃눈에서 7~8개, 30까지
꽃 피는 둥근 심장의 잎으로도 이어영

잎들이 반 접히며 씨앗을 달아두려
잎맥의 흔적까지 꼬투리 벌어지며
사랑의 자취까지를 남겨주며 이어영

사랑의 뿌리로도 달여서 대하증에
겉질을 다려서도 사랑 물 생리통에
신경통 밥 풀 데기 꽃! 마음 열어 이어영

1) (1)紫荊皮(자형피) - ①7-8월에 수피를 벗겨서 햇볕에 말린다. ②성분 : 紫荊(자형)에는 tannin이 함유되어 있고 종자에는 미량의 遊離(유리) lysin과 asparagin산(酸)이 함유되어 있다. ③약효 : 活血(활혈), 消腫(소종), 通經(통경), 해독의 효능이 있다. 風寒濕痺(풍한습비), 월경폐지, 월경통, 喉痺(후비-喉中閉塞不通(후중폐쇄불통)), 淋疾(임질-소변이 快通(쾌통)하지 않고 통증이 있다), 癰腫(옹종), 癩疥(선개), 타박상, 蛇蟲咬傷(사충교상)을 치료한다. ④용법/용

초록을 뿌려놓고 눈 들면 하얀 길을
걸어가 닦아 오는 길 따라 밭을 간다
초록에 둘러싸여서 마음길이 이영 밭

량 : 6-12g을 달여서 복용한다. 술에 담그거나, 丸劑(환제), 散劑(산제)로 하여 복용한다.

(2)紫荊根皮(자형근피) - ①약효 : 破瘀(파어), 活血(활혈), 消癰(소옹), 해독의 효능이 있다. 狂犬咬傷(광견교상)에는 신선한 자형목피를 傷口(상구)의 주위에 붙이고 婦人(부인)의 遺尿症(유뇨증)에는 자형근 15-24g을 술, 물 각 반잔씩을 넣고 달여 복용한다. ②용법/용량 : 6-12g을 달여 복용한다. <외용> 짓찧어서 붙인다. (3)紫荊木(자형목) - ①약효 : 活血(활혈), 通淋(통림)의 효능이 있다. 부인의 痛經(통경), 瘀血腹痛(어혈복통), 淋病(임병)을 치료한다. ②용법/용량 : 15-30g을 달여서 복용한다.

(4)紫荊花(자형화) - ①약효 : 清熱(청열), 涼血(양혈), 小腸(소장)을 通(통)하게 하고 祛風(거풍), 해독의 효능이 있다. 류머티성 筋骨痛(근골통), 鼻中疳瘡(비중감창)을 치료한다. ②용법/용량 : 3-6g을 달여서 복용한다. 또는 술에 담가 복용한다.

(5)紫荊果(자형과) - 咳嗽(해수)와 妊婦(임부)의 心痛(심통)을 치료한다. 6-12g을 달여서 복용한다. <자료출처: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햇볕이 들어오는 벗 잎은 반짝 이영
춤 춘다 속삭이는 벗잎의 고개이영
벼꽃의 사랑만큼 온몸이영 이영이

자라는 벼이삭이 종 달면 논둑이엉
파래진 뒤 꿈 치를 마아냥 들어이엉
이 논과 저 논이 구분 없어지고 이어엉

하늘도 땅도 길도 같아져 파아란 들
마을도 파래지고 마을도 파래지고
초록 떡 한 장으로다 혼 친하가 이어엉

하늘에 해바라기 수천 개 열병 받다
오로지 날만 위해 고개들 씨방이엉
그 안에 나와 만난 씨 앓는 이엉 씨방 씨

둥글게 터트리느 씨방 씨 하나 둘 셋
날 위해 해를 안고 고개들 잉어이엉
우로 뵈! 하늘 중간쯤 오고 나서 씨방 씨

내꺼 잉 - · 3516

이건 나 저건 네 꺼 점점이 선을 그어
너와 내 알콩달콩 산마을 노래이어
사랑이 밋 줄 굿자 자 내꺼 네 꺼 이영이

더 푸른
털 푸르른
셋노란
더 셋노란
그 안에
익힌 사랑
속도를 마구내면

뒷산이 마을 싸안고 합창 불러 이어잉

2

라합 잉어이영

가슴은 무조건에 넓어야 합니다로
이러한 이유로 해
제 앞의 잉어이영 마을로 오다보니
눈앞에 잉어이영이 환하도다 이 잉어

이어로 환한 이영
속이 틀 이어 이영
파아란 들 이영이
새파래 이어이어
앞가슴
잉어이영이
둥둥 뜨는
이어도

볼래요
가로 세로 똑같이 방정식을
풀어서
방금 엮던 산 웃음 보실래요

홍겨운 산 나무들의 뒤로 젓힌 소리를

한낮이 햇빛점심 먹어요 먹느라고
하아하 호호호오 오므락 조므라악
사랑을 그린만큼만 두고두고 웃는 입

셋노란 벼이삭이 방긋이 웃는 동안
갯잎이 노랑도록 익어갈 즈음이면
가까이 너무 가까이 햇벼이삭 셋노란

초록을 뿌려놓고 눈 들면 하얀 길의
하늘이 닳아 오는 길 따라 밭을 간다
초록의 이영 보실레 마음 길의 이어영

햇볕이 들어오는 벼 잎이 반짝이고
춤추고 속삭이는 고개를 들며 올려
벼꽃의 이영 보실레 온몸으로 이어영

내 신을 벗어두고 내 손은 어쩔 줄을 모르고 비취오는 햇
살을 담뱃 받아

그대의 꽃 가슴이 와
벗어들며
와 와 와

두 손을 번쩍 들고 참으로 받쳐 들고 내 님을 받쳐 들고
날마다 떨기나무 안타는 그림 속에 앉아서 열두 구비가

잘도 잘도
와 와 와

복숭아
꽃 등우리

맨발로
땀뿜면서

꽃비의
복숭아 뺨

두 손을 감싸면서

그대의
꽃사슴으로

복숭아 달
내린다

너 정말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말라 매시간 매달리어 개척
한 교회이다
29년 90도로만 부엌 울음 울다가

냉장고 달라고만 했는데 차바퀴가
얼음을 달라고만 했는데 냉장고가
눈발이 내리는 날에 행복 이영 굴러온

- 개척교회 김윤배목사이야기

하늘삼아잉어이영 - · 3524

그 옆의 파란나무
걸어와 흔들리는 동안에 나는 지금
꿈짜을 하지 못해
여기서 기다리노니
백합의 잔
이어요

피로를 풀 향기로 메노니 오실 동안
방방이 이영마다 도피성 매달고서
여기서 기다리노니
향기 바다에
이어요

잉어입술이영 - 새벽기도 · 3525

눈 들어
꽃가지에
마음을 걸어두자

하늘이 걸어 나와
입술이 잉어이영

내 작은 찬란한 입술
몽울 몽울 피어나

어머니
 얼굴에는
 둥글고 아름다운
 눈빛이
 하늘 닮아
 입술이 방긋하여
 작은 딸 입술 방긋해
 큰 딸애는
 코 오뚝

아들의 얼굴에는
 하늘이 들어 있고
 입술은 잉어이영
 코 오뚝 절로 돋고
 자전거 둘둘 말이로
 아빠
 이
 영
 둘도리

하늘이 담뱃담뱃 내리어 잉어이영
 어머니 잉어이영 자꾸만 웃음 헛살
 구름이 잉어이영이 잉어이영
 이영이
 익어 갈
 무렵에는 어머니 잉어이영
 달디 단 가을 길에 샘물 해 한 가닥을
 선인장 잉어이영이 잉어이영 이영이

빈손잉어이영 - · 3528

어머니 태에서만 가져온 선물이닷
마아냥 무얼무얼 움켜질 그때 보다
어머니 뱃속에서 온 빈손이영 배부름

아침의 노래 가락 이어서 여름의 땀
추수의 이삭이 된 하늘 땀 어머니 속
빈손에 예쁜 예프론 빈손이영 배부름

아가잉어이영 - 새벽기도 · 3529

아가야 아가이영
아가야
하늘 내려 봉오리 땅이 솟고
아가야 아가이영
아가야 꿈 틀 이영이
사방팔방 이영이

사방의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넵의 아비삭을 왕에게 데려와도
동침치 솔로몬이영 아니하여
옆에서

꽃신을 신어 봐요 봄에는 노랑꽃에
여름은 빨강 꽃에
가을은 노랑꽃에
다음은
꽃신아리랑 들기까지
아리랑
꽃신은 진달래의 꽃 산에 두고 오고
이랑은 향기만을 두고 오고
알아서
꽃신아리랑 치마안쪽
아리랑

현것증 어지럼증 도지는 날이로다
하늘이
얼굴에다 덧 분을 잔뜩 발라
산에는 아리랑이영
지금 사내
뱅글
뱅
돌아라
사내이영
꽃나무 산에 이영
돌아라 뱅글그글 몸 둘 길 모르는데
분홍의 얼굴 되라고 산에 이영 붙여서
현것증 돌아들어
발길이 뒹뒹뒹
파아랑 모자까지
아이고
마
내사 마
눈 둘 길
없어라 마아
모르겠다 봄 산에

애들아 이리와라
꽃 뿌리
꽃을 봐라
꽃망울 꽃 들바람
구름 위 꽃을 봐라
꽃 아침 구름바다에 너울너울 흘러라

고향이 잉어이잉
보고파 입을 열어
뽕뽕봉 전화선에 고향에 묻어나다

어머니 고향이잉선
엄마아아 나예요

고향이 구름이라 거기가 고향이라
들리는 고향잉어
고향이 에덴이라
음성이 거기 계셔서 오늘 하루 나예요

오오냐 그래그래 좋구나 천국이지
어디든 조심하고 고향이 어머니지
어디든 잘 있음 됐어 그래그래
오냐아

노오란 치자 물로 모시에 물들이고
치자 꽃 구름나라 포르르 날리느라
은장도 여인잉어가 사랑꽃이 꺾느라

노오란 치자 물로 명주에 물을 들여
노오란 저고리를 입은 날 토독토독
자주의 옷고름 사이 볼로로록 젓가슴

77에덴잉어이영 - · 3537

아아주 짙은 청색 하늘에 줄 내리며 네 앞의 클로버를 건
져다 올려놓고 높다란 청색 하늘의 77이영
에덴이

무너미 행복 줄이 거기서 여기까지 들어와 하루라도 거르
는 일이 없이 쭈우욱 길게 늘어서 77이영
에덴이

잉어이영나방 - 새벽기도 · 3538

나방이 나팔나팔 가슴에 취해서다
알뜰한 누에의 벽찬 누에 집에
비단실 질곡 속에서 나방이영 알싸해

꿈이다 아쉬워도 긴 잠은 자지말자
눈뜨면 끝없는 잔디 위 하르르르
모처럼 머리 빗는다 나방이영 햇살에

아련히 발길이어 내 발길 구름일레 스프르 미끄러이 꽃잎
에 걸어볼까 휘영청 높낮이로만 휘돌아 날을까

질러서 발길이어 오르는 난나그네 비이잉 둘러이어 달구경
하여가며 아침의 발길이어 크낙한 한 점을 향해 수를 놓아
걸을까

손가락 물고서서 머어영 쳐다보는
아이들 시메 산골 아이를 보러갈까
한 달이 하루이인양 잉어이영 위을까

한 낮의 원두막에
나 때문

덩굴덩굴 올라온 등글 박 수박으로
열어서 원두막에서 잉어이영 낚을까

파르르 한 잎 꽃잎
꽃가지 꽃부리 긴
동굴을 지나면서 봄이 와 샛노랗다
조금은 그리움이영 샛노란 영 그리움

찬
지금
이 편지는 그 아래 심심산천
구름 밑 구름장을 덮고서 잉어이영
그 사이 잉어이영의 바람 한 장 노래로

은장도
풀 싹 끼리 어울려 아우르는
손수건 한 장 한 장 사르르 울어 젖는
그 사이 잉어이영의 바람 한 장 춤으로

당신을
보아야만 하리라 하리이다
꿈 하늘 노랫소리 부끄럼 아니하는
바람의 잉어이영의 물 함대 힘 사이로

그린 비
타듯 타듯
잉어의 나비 뜨락
잉어의 산들 뜨락
그린 비
투표용지에 동그라미 단비다

이영이
춤추느라 마당을 쓸고 닦는
환해진 뜨락 안을 향기로 넓히느라
그대의 라일락이영 사르르르 끌리네

이영이
춤추느라 기이인 옷자락을
바람이 끝 마당에 서서는 하늘거릴
긴 소매 라일락이영 향기타고 끌리네

더 하도 덜하지도 둥그런 달 닳으라 머언데 그리 운이 가
까이 모셔오라
달이영 둥그런 이영 넉넉하고 좋구나

달 이영 밤알 한 톨 오드득 깨맞처럼 둥근 상 둘러앉아 가
운넬 이어가면
송편이 둥그런 이영 넉넉하고 좋구나

젓가슴
가슴이영
그러면
이영덩이
수줍게
오무리면
소중한
가슴이영
반지가 반짝이다가 젓가슴이 웃네요

반지에 가슴이영
다음에 그다음에
아직도 손가락에
엮히는
가슴이영
언제나 순결이에요 맑은 호수 눈웃음

햇살의 동그라미 안으로 들고 싶다 오르다 달리다가 해 앞
에 바다잉어 지금은 해의 크기로 바다잉어 뉘인다

3
잉어이영처음잉어이영

햇빛이 물들었네
아침이 물들었네
온 몸에 잉어이영
아침의 햇빛으로
젖었네
햇잉어이영 그렇다면 몸은 물

사과를 한 입 물면 달콤히 한입 물면
고향이 입 속으로 달콤히 들어와서
한 입을 가득 채우고 달콤하게 넘는다

갓을 쓴
여인들이 있는 곳
안동에는
왕능수 버드나무 이영이 늘어지고
물 건너 선비님 이영 줄줄이랑 줄이랑

- 참고사항 : 안동 퇴계의 도산서원에서(2010.8.21 펜클럽세미나 때)

달님이 내리는 3분의 1은 내 것이고 별이 내리는 3분의 2
는 그대 것이고

바다는 지금한창 물이랑 살결들로 몸살을 앓는 중임 살가
운 살결이랑 정말로 잉어이랑을 주실 것이 분명해
푸른 산 지금한창 풀이랑 살결들로 몸살을 앓는 중임 살가
운 살결이랑 정말로 산새이랑을 주실 것이 분명해
오월의 보리 익혀 찰찰찰 손수건의 하얀 슬픔을 흘러내린
파랑새 무슨 이랑을 주실 것이 분명해
정말로 무릎 꿇어 그대의 발아래께 말씀을 듣느라고 밤새
는 저에게도 행복한 잉어이랑을 엮으실 께 분명해

풀잎도 봉오리도 들바람 만나서는 더러는 고개 숙여 잎 바
람 바람결에 솔바람 솔솔 익는 저기 저 나그네이영 구름 들
게 저기 저

바람의 앞뜰악의 길 떠나 아슴아슴 꽃 수술 달아보려 손
떨림 봄 눈 따서
들길에 뿌리느라고 하루 종일
나그네

정말로 늘 목마른 갈증을 위으려고 길 떠나 비틀비틀 흔들
릴 나그네야
겨우내 따뜻한 햇빛 받으려고 온 생애가
나그네

하늘가 그쯤에서 한 번의 만남으로
땅 가에 그쯤에서 한 번의 만남으로
내 삶은 그 웃음으로 달콤달콤 뜨는 강

나보다 먼저 웃는 물결의 바람소리
나보다 먼저 가는 바람의 필력임에
여미는 내 앞자락은 그대로 서 뜨는 강

놓쳐진 그 바람 가 그 창가 그 길옆에
가슴의 바람소리 그 강가 물결소리
이 자리 한 생애만큼 그대로 서 뜨는 강

어울려 팔을 들어 팔짓을 모아보라
사랑의 팔 끝으로 오르는 향기보라
둥글글 들어 보아라 기차이잉 우리는

하나씩 향기 들고 달리는 기차이잉
지나는 그림마다 꽃가지 달리느라
우리는 섬에서 피는 기차이잉 우리는

라일락 향기이잉 라일락 향기에요
이슬의 향기이잉 이슬을 달았어요
당신의 눈물 닦아서 향기이잉 옆드림

노오피 달리시듯 눈 들어 하늘 봐요
두 팔을 벌리시는 폭넓은 껴안으심
못 박힌 당신의 몸에 향기이잉 나시는

새하얀 하늘나라 하늘이 하얗도록
새하얀 얼굴에다 분홍의 웃음 드러
펼펼펼 끓는 여름에 해바라기 하와요

꽃비로 꽃불 잡고 사랑 비
손을 잡고
왼손에 오른손에 두 팔을
함께 잡고
유난히 반짝 반짝일 두렵 없는 이영 줄

봉평의 메밀 이영 이효석 소설이영
하얀 발 장돌뱅이 지나는 소리 듣자
히 생원 안보일 때에 메밀 이영 봉평의

마음이 모자라는 하얀 발 들이밀고
언제쯤 지나갈까 기다린 메밀이영
헛바람 불다 불다가 메밀이영 마음이

등 따순 이른 새벽 행여나 만날 가 고
땀장이 옛장수도 생강을 팔러 나온
밭길에 바지 가랭이 메밀이영 등 따순

메밀꽃 그 보다도 더 하얀 나의 순아
흰 눈물 꿀방울로 떨어진 밭길에서
꾸부정 산에 사내가 메밀이영 메밀꽃

어디든 눈 돌리면 어디든
매밀 꽃이
고개를 내밀면서 아직도
비밀스런 쿵덕 쿵 물레방아가
돌아돌아 가는 밤
메밀묵 한 사발에 송이의
얼굴까지
떠올라 왼손잡이 닳은 손
에훗까지 뚱뚱 뜯 메밀 주에는
첫사랑이 설렌다
봉평면 창동 4리 남안동
이효석을
평창군
봉평면의 메밀꽃 메밀시인
메밀묵 목소리까지 시인으로 만든 밤
남안동 엄나무는 둥둥둥
깊신 장구 강냉이
광주리에 수세미 물지게도
베 짤 때 함께 들리는
메밀시인
메밀묵

그대가 오시는 아
하이얀 서리가 아
내리는 밤입니다
당신은 오시는 아
비단 비 날개 달고도
새 하이얀 아 님이서 정녀영

나는 아 시슴처럼 기이인 목 느리고
새벽 녘 창 앞에서
발 시린 하얀 걸음 아

나의 발 내 날개는 얇아서 잘 보이고
그대의 내 날개는 두꺼워 안 보이고
두 날개 두 발이어도 절름발이 부부요

내 창은 안개 속에 달빛이 안 보이고
그대의 창 깊이에 하늘이 피어나도
두 빛이 각각이어서 절름발이 그대로

맨 처음 떠오르면
그대는 나 따라와
달빛에 마주하고
해 달이 하얗게도
웃으면 하얀 웃음이 볼에 동동 뜨는데

내 해는 볼 붉히는
그대는 나 좇아와
푸르른 꿈 따라서
해 달이 하얗게도
웃느라 하얀 웃음이 날 미치게 뜨는데 |

왜 그래 울 멍 울 멍
산 높아 그런 거야
바다래 그런 거야
울 멍 멍 아니 되지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러는 거 왜 그래

한 게여 닳아 그런 거야
흔들린 여길 잡고 그런 거 울 멍 울 멍
그래서 닳는 거야
아니면 나를 닳아서 울렁울렁 한 게여

눈시울 울 멍 울 멍 예쁜 입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잠을 못자요 못자잖아
구름이 흘러가니까 그런 거야 눈시울

그래요 구름다리 타보아 그래 봐요
비 오면 비 그네를 타보아 그래 봐요
울 러 영 시원시원히 울 령 울 령 그래요

파아란 도장이다 팍파악 찍혔네요
사방의 바람 잡아 파파악 찍느라고
온 땅이 푸르렀네요 이리 와서 보세요
- 계시록 7장에서

바다의 그 물에다 둘러리 일만 이천^{고후 1:21}
사랑의 들레에다 둘러리 일만 이천^{해 1:13}
바다의 그 흐름 물살 일만 이천 인으로

하늘의 문설주의 입구에 일만 이천
양으로 인을 묶어 들이민 일만 이천
세 살의 아이웃음이 일만 이천 흐르는

4
더듬이이영

아직도 노을만은 지금도 보이네요
아직도 눈썹만큼 둥글게 내밀고서
그대로 해 그람자라 일러주며 남기는

그 오정 즈음에는 문 앞에 늘 앉았죠
사람 셋 맞은편에 있어서 얼른 가서
당신의 발 씻으소서 그런 후에 쉬소서

또 떡을 아주 조금 조금만 가져오리니
한번이라도 떼어 잡수소서 그러소서
당신의 종이 옵니다 그런 후에 쉬소서

고운가루 세스아 반죽하여 떡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잡아서요
당신을 위하여서요 그런 후에 왔어요

뼈터와 우유와 송아지 모두 올려 드리니 모시어 들이니 당
신이 잡수셨네요 그런 후에 쉬소서

-1995. 9. 8일 5시 21분 17초

빠알간 맨드라미 맨 몸을 들이미는
맨 살로 더듬더듬 빨강게 들이미는
여름이 더듬이이영 새빠알간 더듬이

산 넘어 강을 넘어 넘어서 구름 넘어
유월절 너머이영 더위를 넘어넘어
코오옥 눈물방울을 너머이영 산 넘어

끝 넘어 아스라이 끝자락 너머이영
정말로 당신 대신 하늘에 아스라이
올라라 푸른 깃발을 너머이영 끝 넘어

정말로 당신대신 한밤중 그 외나무
다리에 별이 오른 가운데 섰으리다
새 얇은 비단으로만 너머이영 정말로

두 팔로 아릅드리 두 팔을 벌리시고
두 손을 올리시고 보라색 글자 쓰며
끌리듯 이끌리듯이 강을 갈라 두 팔로
- 여호수아 5:10 끝

여름이
파랗다
아
은 비단 물결들이 바람의 하늘 길을 이어
어
울렁울렁
나리꽃 멧쩍은 듯이 키 큰 웃음
씨었네~
들
사이 솟아 나온 잎들이 하나같이
잎드려
눈치껏만 맨얼굴 들어나자
나리꽃 멧쩍은듯이 황금모자
씨었네~
향
내음바람내음꽃대궁과란기둥 하나들
마냥마냥 세어
어! 남는 하늘
나리꽃 우쭈대다가
멧쩍어서
씨었네~

사랑해 아주 사랑 해 별 속 달 님까지
유난히 꿈이 많아 느낄 늘 별을 보다
아아주 아주 사랑해 별 속으로 사랑해

아 그만 그녀에게 아아주 넘어가서
날마다 별 꿈꾸기 더하여 사랑하며
별나라 상큼 상큼히 걸어오와서 아 그만

멍석을 깔아놓고 둘이서 같이 누워
별 하나 나 하나야 아니야 별 둘이야
둘이서 사랑별로 뜬 우리 나날 멧석을

꿈나라 들어서도 날 보고 생긋 생긋
웃느라 하루 종일 힘이 나 나의 별아
오 별아 하늘 꽃비로 나에게 온 꿈나라

꽃비가 내리네요 꽃별이 되어서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절로절로
웃을 일 별의 웃음을 나에게 준 꽃비가

별비가 내리는 날 별 꽃비 되는 날에
별 눈을 닦아가며 우리는 반짝반짝

긴 날을 아주 오오래 몽울몽울 별비가

별 보고 일어나서 별보고 들어오면
잘했다 안아주며 웃어준 나의 별아
별 줍는 하루일과가 별 꿀맛이 별보고

그리움 별이 되어 사랑의 별이 되어
빛나는 별 바구니 한가득 반짝반짝
오늘밤 이 별 상자를 별님에게 그리움

별에서 나에게로 내려온 우리별님
한 아름 알콩달콩 별이 된 이야기로
꽃밭에 내려앉아서 한 생애를 별에서

생명이영 - · 3572

아가야
가만히 와 생명을 입안으로
넣누나 아가야아 보이지 않았지만
아가야 우리에게 와 기쁨이 된 아가야

아가야 깃 토독토독 두드린 사랑하나
열리며 생명 줄로 드느라 밤 깊도록
엎드려 조심히 삼가 아가야아 아가야

아가야 잎사귀에 하얀빛 살쭉살쭉
새하얀 냉이 꽃에 노랑색 살쭉살쭉
토끼풀 살쭉살쭉콩 잘도 크네 아가야

아가야 너에게로 긴 줄을 내리는 날
긴 줄을 잡느라고 종이를 사랑 찾는
아가야 앞길 몰라도 잘 도 크누나 아가야

아가야 두 손 모아 두 손을 펴어 보라
아가야 보이는 건 우리의 사랑꽃술
하늘빛 받아 내리어 우리 안의 아가야

아가야 소곤소곤 사랑을 모아보라

이웃이 오손도손 들려줄 사랑소릴
들으며 웃어 보려마 아가야아 아가야

아가야 노랗고도 새파란 모심기야
줄 맞춰 늘어서서 벼이삭 파랗도록
햇볕에 종종걸음이 익고 있지 아가야

아가야 울고 있네 이리로 오려들어
자꾸만 오려들어 보채고 또 보채네
잠자리 들려하는데 울고불고 아가야

아가야 홀로서라 아가야 울렁울렁
정말로 꽃이 되면 아이주 키가 커져
꽃바람 불어보아라 아가야아 아가야

아가야 해살해살 꽃물로 포랑포랑
홀로도 커다랗게 자라렴 그래야지
파아란 나무들 늘어 울창울창 아가야

아가야 바람 세차 그래도 하늘 푸름
아가야 아가야아 눈으로 안 보여도
우리들 이만큼보다 아가야아 아가야

아가야 바람막이 사랑 줄 잡아들고
열려진 생명 줄로 이으며 대를 잇는
눈으로 안보이어도 아가야아 아가야

꽃사슴이영 - · 3573

꽃사슴
목이 기인
사슴이 울 사슴이 두리번 두리번
꽃길을 걷노라고
한걸음 한 걸음 씨익 웃길 때 마다
꽃사슴

꽃사슴 꽃이 아주 작아서 사슴꽃잎
날개를 짝아악 펴 사슴을 올려놓는
한걸음 사뿐사뿐히 꽃잎 얹힌 꽃사슴

꽃사슴 목 언저리 꽃잎이 몽울몽울
꽃잎을 단 가지는 안 보여 꽃잎만이
사슴은 꽃 목둘레가 너무 길어 꽃사슴

꽃사슴 목이 기인 사슴아 너는 정녕
목은 더 길어지며 눈은 더 높아지며
꽃 관이 없느라고 흰 점 토독 꽃사슴

목이 긴 눈이 높은 사슴이 두리두리
두리 번 봄을 탄다 봄이다 와 봄이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꽃잎들이 목이 긴

꽃잎이 아주 작은 꽃잎이 포울포울
내리며 사슴 발에 얹히며 내려오며
사슴을 올려놓는다 꽃사슴이 꽃잎이

꽃잎이 사뿐사뿐 사슴 목 언저리로
꽃가지 사슴가지 나무는 몽울몽울
가지는 안 보이더라 꿈이 들어 꽃잎이

목이 긴 그 언저리 꽃잎만 두리 등등
사슴의 꽃 목거리 날개를 달아들고
꽃잎이 하늘중간에 다리 놓아 목이 긴

꽃사슴 눈높이로 하늘을 쳐다보자
목이긴 꿈이 하나 척하니 딱 꽃 관을
올리며 목이 기이인 사슴하나 꽃사슴

두 물이 두 물 머리 남한강 북한강의
들이서 하나 되어 만나는 물고기
우리는 오늘도 만나 하나 되어 흘러요

두 물이 임이 나의 님 되는 사람 당신
우리 물 이렇게도 잘 흘러 서로 만남
부용산 청계산 곁에 형제봉이 지켜요

물로 된 사람이신 당신이 우리나라
헤어져 지내시지 마세요 그리 마요
우리를 닮아보세요 두 물 머리 만나요

발길을 돌린 데도 언제나 만나지는
운명의 우리 둘이 살 비벼 서로 맞대
하늘에 오르고 올라 우리 둘이 살아요

푸르른 하늘까지 올라요 두 물 머리
물 위로 날아가며 사랑해 정말로요
한 물을 이루어가며 사랑하여 보아요

우리는 물이에요 물고기 물이에요
남한강 북한강요 남북이 한 강 한 강

하나로 정말 만나요 우리 둘이 안아요

머리로 두 물 머리 사랑을 안아들고
아이주 아름다운 우리 꽃 한 송이를
머리에 살짝 얹어서 향기 뿜어 볼께요

두 불의 보조개네 봉긋이 들어나네
오오오 남한북한 한강의 남한강의
400년 느티나무의 아래에서 만나요

나란히 어깨 맞대 하나로 꽃바람이
훨훨 하늘 향해 날갯짓 하는 날에
두 산이 날개를 펴며 하늘 올려 주네요

꿀 먹고 자라는데 보조개 쏘옥 들어
지도에 참외 씨로 콧 찍어 광주부 1750
우리도 볼 비벼가며 콧꼭 찍혀 박혀요

입술이영 - · 3576

까아만 제 몸 위에 입술을 달았어요
빠알간 입술로만 말하고 싶어서요
긴 거울 온 몸 까맣게 얼었어도 그래요

입술을 달았어요 오로지 말하려고
말하고 싶어서요 입술을 열었어요
한 눈을 팔지 않고서 가지 휘게 입술을

아 글썽 말하려고 팡파양 터졌어요
터지며 입술 열며 입술이 꽃술로요
한 마디 할 때 마다 잘도잘도 아 글썽

하나도 아니고요 두울도 아니고요
세엳도 아니고요 파아양 파아아양
빠알간 입술이 돌아 입술꽃술 하나도

파아란 하늘아래 빠알간 제 입술이
까아만 제 몸 위에 얹히며 꽃술입술
파아란 하늘에서도 입술소리 파아란

있들이 쿵럭쿵럭 거리며 울어댄다
걸잡을 수 없게도 한 없이 약해져서
물 보에 얼굴을 묻고 가슴으로
있들이

얼굴을 45도로 꺾고서 하늘 안이
하얗게 부시도록 은방울을 굴리면서
우아한 표주박으로 하이얗게
얼굴을

뽀오안
흰 얼굴에 언제나 웃는이여

와아라 달려들어 함빠악 안고 싶은
모든 걸 털어놓고픈
하
맑음이 뽀오안

사뿐히 조용하고
하 맑은 이슬 닦아 두 손에 담아들면
금방에 물이 들어
베시시 맑은 바람이
나에게서 사뿐히

단아한 머릿결에
뽀오안 흰 구슬로
퐁퐁퐁 솟아나는 우리의 물이야기
오온통 사랑물결이 출렁출렁 단아한

좋아라 싸비비 싸비비며
모이고 모이는 날 들어서 셋이서
좋아라
하 좋아라하하 좋아라 하 좋아라

좋아라 하 하
싸 비비며
안느라

싸안고
날이 날마다
물이 들어
좋아라

사랑만 하라시며 아버진 채색 옷을
주셨죠 밭에서도 보이죠 열두 단이
절하며 일어서서들 둘러리로 사랑만

해와 달 열 한 별이 내게로 모두모두
절하여 엎드린다 했더니 우향 몰약
은 이십 값어치로도 낙타등에 해와 달

그래요 사랑하라 하셔서 살아 가죠
열일곱 나이에든 눈 썩이 푸르도록
당신을 사랑 하람에 요사이에 그래요
- 1995.5.21. 19시 35분 45초에 쓴 글

햇살이 내게 와요
햇살로 지저가며
햇살이 되어가요 해의 살 먹어가며
난 지금 콩콩 뛰면서 행복 몸이 숨쉬는

햇살이 돋았어요
아아주 조금씩만 햇살이 늘어나요
햇살의 앵두예요
앵두의 용알옹아리 행복 몸이 숨쉬는

햇살만 먹고 지고
날마다 나리나래
햇살이 덩어리로
해사리 오신 분을
햇살로 사리살짜궁 행복 몸이 숨쉬는

웃네요
솜방망이
날마다 하얀 눈이 퍼얼펄 내린테도
저 멀리
아침 해가
비치며 나에게로 와 녹여주며 웃네요

웃네요 해를 두고 눈 나라 꽃이 피며
담장을 넘 나들며 노래를 들려줘도
하늘이 햇빛내리면 눈 녹아서 웃네요

웃네요 밀물처럼 되 오는 햇빛바람
눈빛을 한테모아 파랗게 칠을 한다
하늘이 파란햇빛을 내리느라 웃네요

웃네요 없어져도 아무리 눈이어도
눈덩이 하늘만큼 산만큼 싸이어도
햇빛이 무게 다느라 그리움을 웃네요

우리는 꽃망울로 가슴이 다 보이는
날개를 달았어요 길가에 나 앉아서
사랑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려 우리는

우리는 햇빛 따라 고개를 옮기어요
향기가 나는 곳을 따라서 가는 날에
행복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려 우리는

우리는 햇빛만큼 쏟아져 기다리자
하루가 햇빛으로 사랑을 시작하고
오온통 우리 별판이 햇빛 되려 우리는

포오란 사랑두께 뽀오안 볼우물로 다소곳 숙이고서
포로롱 꿈꾸듯이 행복이 봉긋봉긋이 솟아올라 포오란

사랑요
요기는 요
요기요 요기만큼 오느라 꿈 방울이
땅으로 내리시며
아가야 가슴 드러낸
해살해살 사랑요

아가야
해살해살 눈썹달 웃느라고
두 발을 오무렸다 펴었다 웃음방울
아가야 하얀 맨발이
꼬물꼬물 아가야

나를 봐 꿈이 익어 꽃 섶을 물들이면
사랑이 돌레돌레 여물어 손 모으고
안으로 감싸면서 서 그대는 늘 나를 봐

하나님 손에 잡힌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을 떠나면서 두 배의 입맞춤을
들고서 가는 길에는 두 눈 모두 하나님

이영지 시집

2022년 9월 1일 인쇄
2022년 9월 1일 발행

지은이 이 영 지
펴낸이 문학방송